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10, 2019 Vol. 655



Higher Calling 컨퍼런스가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 및 청년들은 행사 기간 중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등 많은 은혜를 받았다.

미국 땅에 울려퍼진 "더 높은 부르심"
Higher calling 컨퍼런스 성황리에 열려

SOON Movement(KCCC) 주관, 미주성시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미주 한인 유스그룹과 대학생들을 예수의 군사로 키우기 위한 Higher Calling 컨퍼런스(이하 HCC)가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지난달 두주에 걸쳐 진행된 HCC 남가주는 물론, 하와이와 동부 뉴욕에서도 동일한 행사를 열었다.

전체 인원 1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행사에서는 대학생들과 Youth 컨퍼런스로 나뉘어 각기 지역과 모임의 특성을 살려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UNASHAMED"(롬 1:16) 라는 주제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며,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그리스도안에서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들은 "다음 세대를 세워 갈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도전하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설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는 샌디에고 '타운 & 컨트리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멀리 베이커스 필드 지역교회에서도 참석하였고,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지역에서도 참가하였다.

북가주의 한 지역교회는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HCC에 참석하고 이어서 크리스마스 이후인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Youth HCC에도 참석하며 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 행사의 준비 위원장인 박종술 목사는 "이메일을 통하여 참가자 학생들의 평가서가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 'Very Nice, Excellent' 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복음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감동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다.

대회장 송정명 목사는 격려사에서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웠다.

2019년에 주목해야 할 美 기독교계 이슈 5가지

2019년 새해가 밝았다. 미국 전역에서 교회와 사역에 관련된 많은 발전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는 지속적인 신학적 논쟁,이슈들과 만연한 스캔들, 그리고 정치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들에 관한 문제들도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2019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교회 이슈 5가지를 선정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연합감리교, 동성애 입장 정리 위한 특별 총회 개최

2017년 4월, 연합감리교 사제위원회는 오는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특별 총회에서 장기간 논의해 온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난 10년 동안 연합감리교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의 위임을 금지하고 동성결혼을 반대해왔다.

이 특별 총회에 앞서, 연합감리교는 위원회를 조직하고 분열된 내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 교회 계획 ', '전통적 계획', '연결된 콘퍼런스 실시 계획' 등 3개의 중요한 계획을 정했다. 전통적인 계획은 동성애 이슈에 대한 연합감리교의 현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더 쉽게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2면에 이어서 계속]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팩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한인 매니저) T.(562)916-5191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주일예배 : 오전 6:00 /11:00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수요예배 : 오후 5:30
금요예배 : 오후 5:30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2019년 봄학기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선교적 신학교
학위과정
• 신학사 (B.Th.) Korean Track I English Track
• 교역학 석사 (M.Div.)
• 크리스천상담심리학 석사 (M.A.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 선교학 석사 (M.A. in Intercultural Studies)
• 선교학 철학박사 (Ph.D. in Contextual Studies)
비학위과정
• "교수 – 학생 간 밀착형"ESL
- 기간 : 5월 20일~8월 30일(총 15주 강의)
- 문의 : 사무실 (Tel. 562.926.1023 / office@ptsa.edu)
• "세상을 비추고 교회를 살리는"평신도대학
- 기간 : 2월 7일~4월 25일 (총 11주 강의), 매주 목요일, 저녁 7:00-9:00
- 문의 : 박동식 교수 (Tel. 213.703.9856 / dspark@ptsa.edu)
• B.Th., M.Div., MACCP, MAICS 개강일 : 2019년 1월 28일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 개강)
• 선교학 철학박사 L.A. 집중 강의 : 1월 21일 ~ 2월 1일
- 제1강 : 1월 21일~1월 25일 : Research Design (논문 작성법)
- 제2강 : 1월 28일~2월 1일 : Contextual Theology (상황화 신학)
- 로스앤젤레스 (L.A.), 캄보디아 프놈펜, 일본 동경, 한국 대구 / 경산 지역에서 개설 중
- 문의 : 사무실 (Tel. 562.926.1023 / office@ptsa.edu)
입학상담 및 서류제출 : office@ptsa.edu / Tel. 562.926.1023, ext. 300, 303, 305 www.ptsa.edu
본교 비전과 특징
I-20 발행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전 세계 22개 노회, 4600여 교회로 구성된 미주 최대 한인교단, 해외한인장로회 (KPCA) 직영신학교
- 졸업 후, 전 세계에 흩어진 사역지 (교회, 선교지) 연결망 (북미,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유럽, 일본 등)
◎ 선교적 영성과 목회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는 신학교
◎ 성서대학교협의회 (ABHE),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 (ATS) 정회원 학교
◎ I-20 양식 발행 : ESL, B.Th., M.Div., MACCP 과정
◎ 90% 이상 유수한 신학교에서 Ph.D. 학위 취득한 교수진
◎ 효율적 플랫폼과 양질의 신학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 (전 세계 16개국에서 수업)
◎ 12개 종류의 각종 장학금 지원
◎ 자격 요건을 갖춘 B.Th. 학생들에게 연방정부 교육국의 무상 학자금 제공
◎ 자격 요건을 갖춘 재향군인들 (Veterans)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등의 혜택 제공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유영기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관계자들이 LA 올림픽경찰서 후원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7일 오전 8시에 옥스퍼드팔레스 호텔에서 올림픽경찰서 후원회 주최로 열린 가운데 LA 한인사회 및 남가주교계 관계자들, 패트리샤 샌도발 올림픽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인타운 치안 강화를 위해 기도했다.

"2019년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은혜 가운데 살자"



은혜한인교회가 새해를 맞아 은혜이슬새벽기도회를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했다.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새해를 맞아 은혜이슬새벽기도회를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했다.

"주님의 기쁨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란 주제로 시작한 가운데 2일 오전 5시 30분에 한기홍 목사가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기홍 목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두번째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다.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육체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볼수 있듯이, 육신의 일을 좇아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게 된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주게 되고 축복된 인생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나님은 형제, 자매가 다투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그럴 때 마귀 역사가 커지게 된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새벽기도회 기간에는 김용훈 목사(워싱턴열린문장로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박수웅 장로('우리 사랑할까요' 저자)가 일일 설교자로 섰다.

[1면에 이어서] 연결된 콘퍼런스 실시 계획은 교단의 구조를 바꾸고, 느슨하게 연결된 콘퍼런스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 콘퍼런스들은 논쟁에 있어서 각자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교구는 어떤 콘퍼런스에 참여할 지 선택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 사제 대부분이 찬성한 '한 교회 계획'(The One Church Plan)은 전반적 교회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교구나 교인들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도록 허용한다.

교단 내외의 많은 이들이 특별 총회가 교단 내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 B012 결의안 두고 미국성공회와 알바니 교구 충돌

작년 성공회 총회는 사제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구에서도 동성결혼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B012)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2일 법안의 발표에 앞서 알바니 교구의 윌리엄 러브 사제는 장문의 목회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그는 '올해 초 동성결혼식이 승인됐으나, 알바니 교구 어디에서나 교구의 사제가 주례를 맡는 결혼식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러브 사제는 "예수님은 교회에 당신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동성애 행위에 대한 그분의 진리를 용기있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비록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옳지 않더라도 말이다"라고 했다.

그는 "두 명의 남성이나 두 명의 여성 간 성적 관계성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며, 창조 속에 담긴 그분의 계획을 왜곡하는 것이다.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이뤄진 결혼 이외에 성적 친밀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이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 가톨릭교회 성학대 스캔들에 대한 대응

작년 8월, 펜실베이니아 대배심은 로마 가톨릭교회 관료들이 주 전역에 걸쳐 발생한 성학대를 어떻게 은폐했는지에 관한 세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300 페이지에 달하는 세부 보고서는 지난 수십 년 간 301명의 사제들이 1,000명이 넘는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폭로했다. 곧 미국 전역에 걸쳐 비슷한 폭로가 이어졌고, 가톨릭교회가 성적인 학대를 저지른 사제들의 죄를 묻지 않고, 이를 오히려 은폐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가 쏟아졌다.

1월 2일 미국 가톨릭교회 사제들은 시카고 일리노이 인근에서 성학대 문제와 관련해 장시간 기도모임을 가졌다. 또 다음달 초에는 가톨릭 지도자들의 모임이 마련되어 있다.

4. 갓스보이스(God' s voice) vs 리보이스(Revoice)

동성애와 성적 깨어짐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설립된 기독교 단체 '퍼스트스톤 미니스트리스'(First Stone Ministries)는 갓스보이스(God's voice)라는 주제로 오는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오클라호마 무어에 있는 퍼스트무어침례교회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작년 11월 성명에서 "성경을 믿는 교회들이 'LGBTQ 기독교' 쓰나미의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LGBTQ는 고정된 성적 정체성이며, 은혜가 이들의 동성애적 이끌림을 덮는다는 메시지에 속는다. 이들은 죄와 깨어진 정체성에 버려진다. 이러한 운동은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힘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갓스보이스'는 작년 7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의 메모리얼장로교회에서 열린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리보이스 콘퍼런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나왔다.

당시 리보이스는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게이, 레즈비언을 비롯해 동성애에 이끌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들을 후원하여 생명을 주는, 역사적인 기독교인의 성적 윤리를 체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콘퍼런스가 자칫 잘못하다가 교회 내에 건전한 기독교적 가르침을 훼손하고 친동성애 어젠다를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리보이스는 LGBT와 퀴어 등 이들의 모든 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 이를 '포용할만한 합법적 정체성'으로 완전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적 지향이 정해진 인간의 속성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리보이스 콘퍼런스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는 6월 5~8일 진행된다.

5. 종교적 좌파 활동의 가능성과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진보적인 기독교 정책과 활동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틀란틱'의 엠마 그린(Emma Green) 기자는 2016년 1월 대선 직후, 좌파쪽으로 기운 교회들이 유익을 얻었다는 지표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보적인 교회들이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출석을 몇 주동안 일정하게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중종교연구소의 대니얼 콕스(Daniel Cox) 박사는 작년 4월 발표한 논문에서 종교 좌파가 부상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콕스 박사는 "회의론의 가장 중요한 첫번째 이유는 오늘날 종교진보주의자들이 한 세대 전보다 훨씬 수가 적기 때문"이라면서 "진보주의자들의 30%만이 조직화된 종교에 대해 많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선한 것보다 해로운 것이 더 많다고 말한 이들도 전체 응답자의 50%였다"고 밝혔다.

콕스 박사는 통계 자료를 인용해 "평균적인 진보 기독교인들은 거의 50세를 향하고 있으며, 30세 이하의 정치적 진보주의자들 중 절반이 무종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속적인 유권자들이 점점 더 중요한 민주연합의 일부가 되어 가고,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종교적 진보주의자들은 타당성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초청하여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신년부흥회를 갖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라스베가스 지역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부흥성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초청
▪2019년 1월 25일(금) – 27일(주일)
25일(금) 저녁 7시 30분
26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7일(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이찬수 목사
분당 우리교회 담임목사
KOSTA 국제본부 강사
차세대리더 종교분야 1위
저서
"복음으로 산다"
"붙들어 주심"
"보호하심"
"오늘을 견뎌라" 등 17권의 저자



남덕종 담임목사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일 저녁 성경공부 오후 7:30(사무엘실)
금요일 저녁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5:3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교육관)

문의: 702-686-0691
홈페이지: PILGRIMCH.COM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
3840 EL CAMINO RD, LAS VEGAS NV 89103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 교회와 3 · 1 독립운동 (II)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1919년 3.1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넷째 원인은 일제가 교회를 조직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일병탄이 공포된 때로부터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10년간 교회가 얼마나 위축되었는가는 1910년 신입교인 수가 2천명이 넘었는데, 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는 400명도 안된 사실에서 엿 볼 수 있다.

1915년에 발표된 '포교규칙(布教規則)'에, 모든 성직자들은 총독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하며, 교회나 종교 집회소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한 허가제도로 일체의 교회활동을 철저히 제약하려는 일제의 정책에 대해 평양에서 사역하던 감리교 의료 선교사 홀(S.Hall,M.D.)은 한국이 'Hermit Kingdom'(은둔의 왕국)에서 'Permit Kingdom'(허가의 왕국)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하였다. 경찰은 모든 예배를 감시하고 설교의 내용을 검열했으며, 신자들이 모이는 정기예배 외에도 기도회, 사경회, 부흥회에 참석하여 감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설교의 내용 중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나, 여호수아와 갈렙, 혹은 기드온의 300용사 등의 기사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라며, 이는 약한 한국이 강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암시적 내용이므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며 억지를 부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황숭배와 신사참배 강요는 한국 교회가 항일 대열에 서게 하는 직접적 동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 일본인도 3·1 독립운동의 첫째 원인이 총독부의 신앙 탄압이라고 솔직히 고백한 일이 있었다. 기독교 학교에 대한 탄압은 1915년에 발표된 '개정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수업 중 성경교육과 예배를 금지시키고, 반드시 일본어만 사용토록 하여 언어까지 말살하려는 작태를 서슴지 않았음에서 볼 수 있다.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기독교계 학교의 탄압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억압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교파간의 연합사업을 착실하게 진척시켰다. 1915년에 장·감이 연합하여 「기독신보」를 창간하였고, 1918년에는 서울 YMCA에서 장·감의 대표자들이 모여 '조선예수교 장·감연합회'를 창설하였다.

1915 포교규칙 교회 활동 제한
경찰의 예배 감시, 설교 검열
일제의 박해로 내부적 불만 쌓여
헐버트 선교사 "때가 올 것이다. 기독교는 정의, 청결, 친절, 공익, 애국심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와 고종황제의 급서가 기폭제

그러나 일제의 한국에 대한 탄압은 그 도가 점점 심해졌다. 그들이 행한 한국 탄압에 대해 1920년 그리스볼드(H.D.Grieswold)는 다음 같이 기록하였다. "……극심한 무단정치, 비국민화, 정치에 있어서 철저한 한국인의 참여 배제, 한국인에 대한 차별 정책,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불허, 제한적인 종교적인 자유, 한국어 공부의 실제적인 금지와 해외여행 제한, 왕실 토지의 징발, 공창과 아편의 보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비도덕화, 만주로의 강제 이주, 산업과 상업에 있어서 일본인들에 대한 우선 정책 등"이다.

일제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에 저항하는 민족의 내부적 불만은 쌓여 갈 수밖에 없었다. 다만 힘이 없고 때가 성숙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물론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벌인 항일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 조직적 항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이 민족적 거사가 활화산처럼 분출되어 나왔다. 1908년 헐버트는 선지자처럼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그는 말하기를 "……때가 올 것이다. 기독교가 끼친 문명의 영향이 일제의 탐욕과 억압을 쳐부수어 버릴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일제는 [한국의] 사회 구석구석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기독교는 정의, 청결, 친절, 공익의 정신, 애국심, 협조, 그리고 교육을 위하여 분연히 투쟁할 것이다." 일제의 억압을 참고 견디던 우리 민족과 교회가 때가 되어 일어난 것이 바로 3·1 독립운동이었다.

3·1 독립운동의 직접적 동기가 된 것은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기 전해인 1917년 미국의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이 밝힌 '민족자결주의'였다. 그 핵심 내용은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며,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자결주의 원칙이었다. 비록 이 원칙이 제1차 대전에서 패전한 국가들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일제의 억압 속에 살던 한국인에게는 하나의 희망적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 동기 중 또 다른 하나는 그 해 정월 22일에 고종황제가 갑자기 붕어(崩御)하자, 그의 사인(死因)이 일제의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져 나가면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국상을 당하여 일제가 일반인들의 문상을 위해 1주간을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허락하자, 민족 지도자들은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측하고 이 기회에 시위를 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동안 쌓인 분노가 독립 쟁취를 위한 행동으로 표출될 때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던 중에 고종의 급서(急逝)는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결과로 이어져 드디어 3월 3일 인산일(因山日) 이틀 전인 3월 1일에 독립운동이 터졌다. 사실은 인산일 하루 전이 2일에 운동은 일으키자는 천도교 측의 주장을, 그 날이 주일이므로 기독교에서는 동조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하루 더 일찍, 1일 토요일에 운동이 터진 것이다. 조상들의 주일 성수의 정신이 엿 보이는 대목이다. 이 3·1 독립운동은 '자유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자발적인 운동'이었다고 브라운(G.T.Brown) 선교사는 설파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되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18년 4월 파리에서 모이는 만국평화회담에 우리 대표단을 파송하여 민족의 독립을 청원할 길을 모색하였다.

또한 그 해 여름 중국 상해에서는 여운형, 장덕수, 선우혁이 중심 되어 '신한청년단(新韓青年團)'을 조직하였다. 이 단체의 대표였던 여운형은 국내에 있는 지도자들과 독립운동을 논의하기 위해 1918년 9월, 선천에서 열리는 노회에 출석한다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이승훈, 이상재 등을 만나 외국에서의 활동 상황을 알리고 국내에서 할 일들을 의논하고 돌아갔다.



소망소사이어티 LA 한인타운에 LA지부 개소



소망소사이어티가 지난 12월 2일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연례 갈라 행사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슬로건으로 2007년 오렌지 카운티에 창립한 소망소사이어티는 LA 한인타운내에 지부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이에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몇 해에 걸친 준비 끝에 1월 10일(목) 오전 11시에 개소식을 열고 LA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림픽 가에 있는 사무실(엣 삼호관광 자리)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문을 열고 소망소사이어티의 활동들을 펼치게 된다.

또한 1월 17일(목) 오전 10시에는 LA사무실에서 봉사할 자원봉사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관심있는 이들은 562-977-4580(본부) 혹은 213-908-5034(LA 사무실, 1월 10일 이후)로 하면 된다.

LA사무실 주소는 3030 W Olympic Blvd. #217, Los Angeles, CA 90006 이다.

www.somangsociety.org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주명식 목사 초청 부흥회 연다



주명식 목사(cbs '새롭게 하소서' 캡쳐)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조준민 목사)가 주명식 목사를 초청해 개척기념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2월 8일(금)부터 10일(주일)까지 개최되는 부흥성회에 강사로 서는 주명식 목사(템파베이 열린교회)는 '무당 엄마 목사 아들(홍성사)'를 출간한 바 있으며 2018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서기도 했다. 총신대 신대원(M.Div)과 리버티 신학교(S.T.M)와 리폼드 신학교 올랜도 캠퍼스(M.A.B.S)에서 공부하고 미국장로교(PCA) 국내선교부(MNA)에서 파송되어 탬파베이 열린교회를 개척해 시무하고 있다.

"치노 지역과 LA동부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밝힌 조준민 목사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꿈이 있다. 가정이 천국처럼 되게 하는 것,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선교와 이웃 사랑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라고 말했다.

주소: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문의 : 714-461-6412 (조준민 목사)

www.chinovalleybc.co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 95〉

Youth March와 함께 시작한 미주 선교의 꿈!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필자가 섬기는 인터콥 선교회엔 세대 별로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이 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교의 문을 연 세대는 서부지역의 Youth였다. 선교회에선 이 선교운동을 "Youth March"라고 부른다. 청소년그룹이 복음의 대행진을 한다는 뜻이다. 물론 시간을 달리하여 중부와 동부 캐나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스 마치를 각기 진행한다.

서부에서는 1월 2일부터 5일까지 26명의 Youth(중고등부) 세대가 샌프란시스코의 한 필리핀 교회에서 집결했다. 그 교회에서 다민족 유스그룹들이 월드미션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당에서 캠프를 하고 다음날 세크라멘토의 학교방문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참여한 학생들이 다니는 지역 학교 교정에 가서 각 학생이 자기 학교를 소개하고 기도요청을 하면 학생들이 함께 이 학교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한 간절히 중보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공원에서 전도하면서 낮 시간을 보내며 남쪽으로 이동했다.

산호세와 프레즈노를 거쳐 셋째 날 저녁 엘에이 지역의 한 베트남 교회에서 다민족 유스 연합

예배를 드렸다. 예배 중에는 비전스쿨 간증, 단기선교 간증 등 친구들의 간증을 들으며 베트남 청소년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붙였다. 그 모습을 본 베트남교회 성도들은 'Anointing'을 선포하며,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현장이라고 감동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많은 기도제목으로 중보기도한 끝에 그 교회도 선교에 참여하겠다고 청소년들도, 교회 청년들도 또한 어른들까지 비전스쿨을 오픈하고 세계선교에 함께하겠다는 결신을 교회 전체가 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 하나님이 유스들의 선교대행진을 통해 역사하셨다. 이렇게 유스그룹이 방학을 이용한 이 겨울에 그것도 2019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큰 행진의 열매를 본 것이다.

필자는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의 꿈을 같이하는 다민족 교회연합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사역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여야 한다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하신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소수의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몇몇 목사들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부터 유스부터가 아니라, 어린이들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해야 하고, 유스와 청년을 넘어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지상대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위해 온 교회가 온 세대가 열방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이 꿈을 갖고 온 세상 교회들이 주님 나라 개척의 깃발을 들기를 바란다.

저 아프카니스탄 난민들, 저 시리아 난민들은 이제 불쌍한 민족이 아니라 그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복음의 돌파구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아!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열방에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있음을 보며 가슴이 더욱 뜨거워진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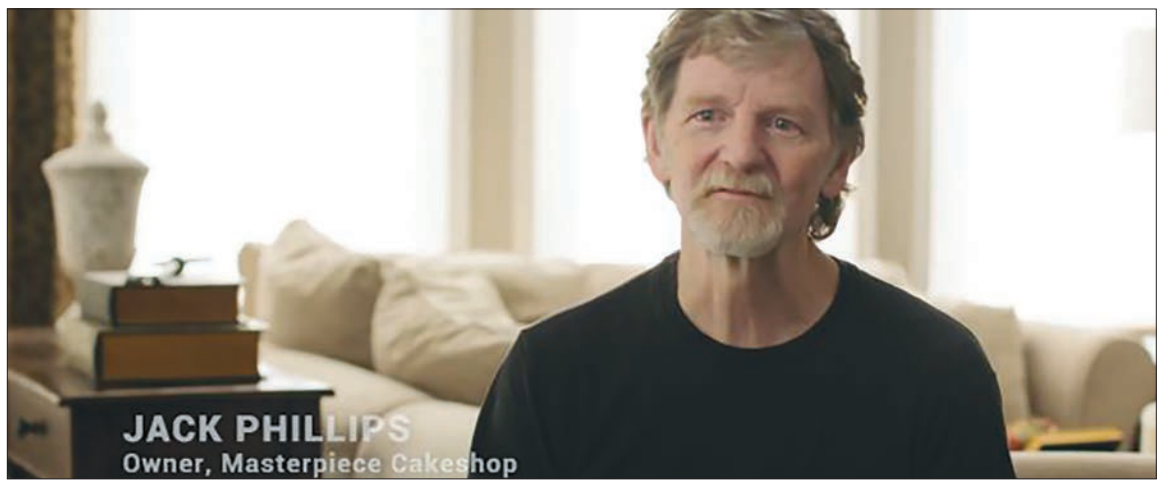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이찬수 목사 초청 신년부흥회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남덕종 목사)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를 초청해 신년부흥회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남덕종 목사는 이번 부흥회에 강사로 서는 이찬수 목사에 대해 "옥한흠 목사의 제자로 대한민국 차세대리더 종교분야에서 연속 1위에 선정된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찬수 목사는 교회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전센터 또한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시는 등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 현재 분당의 한 중고등학교를 임대해 예배를 드리며 타교회 교인들의 이동성장을 막기 위해 초신자만을 등록교인으로 받으며 건강한 교회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했다. 남 목사는 "라스베가스 교민 모두를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오니 오셔서 함께 웃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양팔 벌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했다.

문의 702-686-0691
3840 EL CAMINO RD, LAS VEGAS NV 89103

제빵사 잭 필립스, 콜로라도 주와 10억 달러 소송



제빵사 잭 필립스. ⓒAlliance Defending Freedom 유튜브 영상 캡쳐

콜로라도 주 지방법원이 성전환(트랜스젠더)을 상징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와 이에 반대하는 콜로라도 주와의 소송을 허용하는 판결을 4일 내렸다고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콜로라도 시민권익위원회는 성전환을 상징하는 케이크를 제작해달라고 한 요청을 잭 필립스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1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짐 캠벨 자유수호연합(ADF) 수석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콜로라도 주는 잭에 대한 나쁜 의도와 편견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콜로라도 시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잭 필립스에게 적대적이라고 지목했다. 위원회는 그를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그에게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잭이 자신의 신앙과 충돌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케이크를 만들지 않도록 이 소송을 계속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미국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동성결혼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앤소니 케네디 판사는 "콜로라도 인권위원회가 종교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인가정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 MOU 체결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부서 직원들이 MOU 기념촬영하는 장면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는 지난 7일 한국 서울시 소재 한국여성의 전화(상임대표 고미경)와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정폭력에 대한 주요 현안 논의 및 경험 교류, 한국과 LA 한인사회의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할 계획이다. 세부 협력사항은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 공유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 및 특별 프로그램 시행 ▲네트워크 확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동참 및 지지 ▲상호 이벤트 참여 및 지원 ▲가정폭력관련 정보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케이스 인계(Referral) ▲사례연구 공유 등이다.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는 둘다 1983년에 설립되어 지난 36년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과 미주한인사회가 가정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밝혔다.



영적승리를 위한 임마누엘 교회로

여호수아 7:1-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 여호수아 7:1-15

1. 여리고 성 함락의 교훈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믿되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면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실현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제 칠일에는 하루에 일곱 바퀴를 힘들었겠지만 순종의 믿음으로 돌았을 때 그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모시고 절대자로 섬기는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입니다.

2. 여호와의 성물을 도적질한 아간

여호수아 6:17-19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일지니라"하셨음에도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2280g) 50세겔(570g)중의 금덩이 하나를 훔쳐 자기 처소의 장막 속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언약 공동체로 맺어진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도 연대적 징벌을 내리실 수 밖에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3.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여호수아의 기도

본문 2-5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을 아이성 정탐을 위해 보내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르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라고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마소서 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기적의 승리로 우쭐하는 마음에 자신감 같은 교만으로 삼천 명쯤으로 쳐들어가게 했다가 삼십육 인쯤 전사자를 내고 도망쳐오기 바쁘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의식 속엔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며 계속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의식적 신앙심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아간의 범죄행각을 전혀 몰랐던 것이 큰 화근(禍根)이였습니다.

본문 6-7에서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릎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했으니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은 참패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토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문 5절을 보아 산비탈 전투에서 전사하는 모습과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오는 아이군대의 모습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하고 전의(戰意)는 상실된 채 불안과 절망에 기진맥진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같은 참상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이 참혹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적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범죄한 집단은 멸망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불안과 근심의 고통으로 절망(絶望)에 빠져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 임마누엘을 위한 수순 지시(指示)

본문 10-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聖潔)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대로 제비를 뽑는데 아간의 손에 걸렸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16:33)"

여호수아 7:19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한 것은 아간이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아이성 공격 시, 36명을 죽게 한 살인죄와 하나님의 성호와 권위를 능멸한 죄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거역한 죄로 죽을 지경에 몰리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아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모시게 하므로 아간이 짓밟은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켜 드리려 애쓰는 모습을 잊지 맙시다. 결국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실토했고 그가 훔쳤던 성물과 개인 소유물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 당하고 불태워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함께 처형된 것은 그 가족들이 가장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심판의 형벌이 임하기 전에 자복하라고 권하고 회개케 했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공범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수 7:24-26). 광야 교회에 개인이 지은 죄로 공동체 전체에 연대적 징벌을 당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몸 된 교회들에게 절대적인 성결(聖潔)을 강조하십니다.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시설이 화려하게 고급으로 장식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영적 소망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흥 도시에 백인들이 새 예배당을 크고 깨끗하게 잘 지어서 매 주일 백인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 도시에 직장을 얻어 온 한 흑인 청년이 첫 월급을 받게 되어 주님께 눈물겹도록 감사해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십일조 봉투와 감사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 선 분들이 "너 어디를 들어가느냐?" 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흑인이 어떻게 감히 우리 예배당에 들어가다니" 어림없다며 두 사람이 그 청년의 팔을 하나씩 붙잡고 들다시피 끌고 교회 정문 밖으로 쫓아 내었답니다. 그 때 그 청년이 헌금 든 봉투 2개를 내밀며 "내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 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으나 그 돈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있겠느냐며 위협하듯 물리쳤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설교)이라도 들어야겠다고 강단 가까운 담 밖의 나뭇가지에 올라 귀를 기울여봤으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답니다. 하는 수 없이 언덕에 있는 나무 밑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탐독하다가 서러움에 통곡이 북받쳐 한없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나타나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하시기에 "저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려고 저 교회에 갔다가 흑인이라고 쫓겨났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슬퍼 말라 나도 저 교회에서 오래 전에 쫓겨났단다. 그러나 너에게는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와 훔친 금, 은, 외투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불살라 제거함으로 백성들이 다시 성결케 되어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을 대파하고 점령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매시매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임마누엘 주님의 지시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임마누엘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GAIA CODYCEPS

가이아 동충하초

겨울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 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등소평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코디세핀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필 (No. 2013-0372219)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동충하초의 핵심성분인 **코디세핀**은 항암, 혈당조절, 두뇌세포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





한병 분말 100 g
$130+Tax

가이아 동충하초의 성능

01 항암효과 및 면역력 향상

동충하초 하면 항암 성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 효능'하면 항암효과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명성에 걸맞게 동충하초는 높은 종양 억제율의 항암성분으로
항암 효능이 뛰어나 각종 암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은 동충하초의 성장 도중에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 자체의 억제와 번식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환절기에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을 예방 하는 '면역력' 향상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02 혈당 조절

동충하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췌장기능을 강화 시켜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관리에 효과적이고,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커서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03 혈압조절 및 생식기 기능 강화

동충하초에는 칼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 성분은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효능이 뛰어나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E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노화방지에 탁월하고
생식기 기능 향상 및 강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정력 강화 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를 복용 하고 계십니다.

04 간 기능 향상 및 회복

동충하초에는 다당체, 만니톨, 에르고르테롤과 같은 다른 식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간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면 간의 손상을 막고 각종 간 질환을 예방 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니톨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간 뿐만 아니라 순환기 계통의 질병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05 다이어트 효과

다이어트에도 동충하초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충하초가 몸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을 없애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
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성인병의 근원 이기도 하죠? 성인병 예방과
비만관리에도 큰 효능이 있겠네요. 비만 환자분들과 여성분들에겐
이처럼 큰 희소식이 없네요!

06 두뇌세포 활성화 기능

두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예방, 마약중독 후유증, 신경안정,
기억력 증진에 효능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갱년기 장애를 예방하고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한달에 한번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가이아 동충하초 맛있게 드시는 방법!



물과 함께 동충하초 분말 1스푼을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먹습니다.



두유나 우유에 타서 먹습니다.
요거트에 1티스푼 정도 섞어서 먹습니다.



밥할 때 넣어서 밥(4인분 기준 4스푼)을
지어 먹습니다. 각종 요리에 뿌려서 먹습니다.

구입 문의 **213. 434. 1170**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2018 애틀란타교협 신년조찬기도회 및 하례식

2019 신년조찬기도회 및 하례식 은혜 가운데 성료

2019년 신년 조찬기도회 및 하례식이 5일(토) 오전 7시 30분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열렸다.

남궁전 목사(베다니감리교회)의 사회로 지정만 전 스와니 CBMC지회장의 대표기도, 박화실 전 애틀랜타 CBMC지회장의 성경봉독, 글로리아 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강단에 선 서삼정 목사는 '주의 뜻을 따라 하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야고보서 4장 13-15절을 본문으로 서 목사는 "우리가 2019년을 맞아 새해 소망과 결단과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주인되심 'Ownership'이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일의 주인 곧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이다.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이 맡겨주신 인생과 일의 관리자로 살며 주님을 주인으로 '실제적'으로 모셔야 한다. 관리자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세가지 첫째, 주님을 위해 살라 둘째, 주님의 뜻대로 하라 그리고 셋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뜻을 잘 따라가라고 권면한 뒤 말씀을 맺었다.

신년특별기도에서는 김선식 애틀랜타 CBMC 지회장이 '한국과 미국 지도자를 위해', 천경태 스와니 CBMC 지회장이 '애틀랜타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알렉스 홍 yCBMC 지회장이 '교회, 가정, 일터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임연수 목사(스와니생명나무침례교회)가 '한국과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를 인도하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어진 신년인사에서 김일홍 애틀랜타 한인회 회장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부족한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청교도들의 믿음으로 축복받은 미국 땅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때에 새해 첫 조찬기도회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며 기도한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제선 목사는 "새해에는 더 크게 성령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게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나눴다. 모든 순서 이후에는 제일장로교회에서 준비한 따뜻한 조찬을 나누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행사는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제선 목사), 북미주 CBMC중부연합회(회장 배현규)에서 주최하고 애틀랜타 한인목사회(회장 류도형 목사)에서 후원했다.

앤더슨 김 기자

뉴욕-뉴저지 40여 중소형교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개최



38개 교회 210명의 중고등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뉴저지를 비롯한 미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중소형교회들이 참여하는 중고등부(Youth Group) 연합수련회가 남부 뉴저지 프린스턴 포레스탈 빌리지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수련회는 지난 10년간 뉴저지 지역에서 중소형 교회를 섬겨왔던 CSO(Church Support Organization)와 유스그룹 전문사역 단체인 스트림사이드 미니스트리(Streamside Ministry)가 공동주관했다.

총 38교회에서 210명의 중고등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 'The Truth'라는 주제 아래 유스 사역을 전문적으로 섬겨온 샘 리, 페이스 조, 피스 리 목사가 주강사로 참여해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또 선택강의 강사로 서재원, 베로니카 카발레로(Veronica Caballero), 피터 송, 데이비드 김, 브라이언 앤 팸 휠락(Brian and Pam Wheelock) 등이 참여해 각 분야별 강의도 진행됐다. 유스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시간도 마련돼, 유스그룹 사역자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스그룹 사역자들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Truth)와 가치관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연합수련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수련회는 지난해에도 같은 시기에 총 30개 교회에서 220명의 중고등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바 있다.

김승희 목사, 미국 퀸즈교회협 제정 우수목회자상 받는다



김승희 목사

뉴욕초대교회를 38년간 담임하고 있는 김승희 목사가 미국 퀸즈교회협의회(The Queens Federation of Church)가 제정한 2019년 우수 목회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 퀸즈교회협의회는 뉴욕시 5개 지역 중 브루클린 다음으로 교회 수가 많은 퀸즈지역의 교회협의체로, 1983년 우수 목회자상이 제정된 이후 한인 목회자가 수상자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후 7시 퀸즈 플러싱 테라스 온 더 팍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날 김승희 목사 외에 뉴브런스윅 신학교 미카 맥크레리 총장 등 3명에 대한 리더십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김승희 목사는 앞서 2015년에도 한인 목회자 중에는 최초로 미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이민자들에게 수여하는 엘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전 8: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금요전도 오후 1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975 Wilshire Blvd #415, LA, CA 900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6:00
수요예배 오후7: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213) 267-0030 www.churchla.org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 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6가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EM 오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7:30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주님을 향한,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유치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회 오후 8:00 /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 청년대학부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 유초등부 오전11:00 /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 목요집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영어예배 오후 1:00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주일예배 오전 10:30 /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영어예배 오전9:30 / 3부예배 오전 11: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 매일QT 월~금 오전 6: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후 1:00 /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 수요예배 오후 7:30 /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1부 오전 7:00 / 주일 2부 오전 9:00 / 주일 3부 오전 11:15 (Blended Service) / 사랑부 오전 9:00 (교육관)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 EM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후 12:30 /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영어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0: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유년부 오전 11:00 /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묻혁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 주일 2부 오전 9:30 / 주일 3부 오전 11:30 /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 EM예배 (2부)오전 11:00 /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40 / 3부예배 오전 11:30 /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통일선교라는 농사에 쓸 지하수는 북녘 교회 역사"

분단 이후 북녘 교회사(분북사) 얼마나 아십니까?(상)

졸고의 제목에 나오는 '분북사'는 '분단 이후 북녘교회사'를 줄인 말이다. 보통 '해방후 북한교회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소한 말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분단'이라는 말, 한반도 북부의 교회들이 남의 교회들과 아주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는 '해방'보다 '분단'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썼다.

다음, '북녘'이라는 말, 남과 북은 공식 회담이나 행사에서는 '남한 '북한' 대신에 '남측' '북측' 또는 '귀측'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북녘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말을 쓰면 강하게 반발한다. 아시안게임 때 '북한선수단 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가 심한 항의를 받고 철거한 일도 있었다. 이를 생각하며 '북녘'이라고 하였다.

남녘은 물론 북녘 사람들도 분북사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니, 북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야 한다.

북녘 사람들은 '교회는 인민의 아편, 미제의 앞잡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장엄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진실을 알아야 한다.

희망사항이지만 북녘 사람들도 이 글을 읽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용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분단 이후 북녘교회사'라고 하였다. 제일 큰 이유는 분북사를 전체 한국교회사의 연속 선상에서 보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려고 한다.



유관지 목사(북한교회연구원 원장, 성화감리교회 원로목사)

역사는 '내비게이션'

역사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전에는 '나침반'이라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필수 생활용품이 되면서 말을 바꿨다. 그러니까 역사의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

나침반은 방향만 가르쳐 주는데, 내비게이션은 지금의 위치, 앞으로 남은 거리와 시간, 그 밖의 여러 가지도 알려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경고음을 내며 맞는 새길을 알려준다.

역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아준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선상에서 미래를 예측하게 해 준다. 성경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 32:7)라는 말씀이 있다. 굵은 글씨로 된 말에 '역사'를 대입해보기 바란다. '아, 역사란 것이 이렇구나!' 알게 될 것이다.

통일선교를 하려면 분북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분북사에 대한 이해 없이 통일선교를 하려는 것은 토양을 모르고, 또 과거 그 땅에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 파악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북녘은 한국교회의 발원지요, 교회가 매우 왕성했던 곳이다. 서북(황해도와 평안도)은 과거 한국교회사의 중심 무대였다. 분단 이후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그 자취는 많이 지워졌다. 필자는 탈북민을 만나면 빠뜨리지 않고 그의 고향에 있었던 교회에 대해 물었는데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릅니다"고 대답했다. '공산정권이 참 철저하게 교회의 자취를 지웠구나!' 감탄 아닌 감탄을 했고, 이제는 묻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왕성했던 역사는 저 깊은 곳의 풍성한 지하수처럼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확실히 믿는다. 그것을 퍼 올리면 통일선교라는 농사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모르고 먼 남쪽에서 급수차에 물을 싣고 오려고 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겠는가?

성경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호 10:12)라고 가르친다. '묵은 땅'은 지금은 황폐해졌지만 묵었기 때문에 지력(地力)이 회복되었을 수도 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체사상, 통치자에 대한 본능화된 숭배, 반종교교육, 이런 돌멩이들이 꽉 찬 돌짝밭을 보며 미리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사의 분북사 연구 '위기입니다!'

한국교회의 분북사 연구는 황무지이다. 분북사에 대한 책이나 글들은 대부분 '종교'의 일부로 발표되고 있다. '북한의 종교정책'(고태우),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김흥수, 류대영), '북한의 종교'(아세아연합신대 북한연구소), 이런 식으로 말이다. 종교사와 교회사는 엄연히 다르다. 북녘에서는 더욱 그렇다.

분북사의 통사(通史)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1996년에 발간한 '북한교회사' 하나뿐인데 이 책도 분북사의 '온전한 통사'는 아니다. 이 책은 분북사보다 '분전사'(분단 이전 북녘교회의 역사)에 훨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북한지역의 개신교 복음 수용에서부터 1990년대 전후까지를 통틀어 다루고 있는데, 전체 네 부분 가운데 세 부분이 '분전사'를 말하고 있다. 이 책의 분북사에 대한 기술도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이 책이 1996년에 발간되었는데 분북사에는 그 이후에 굵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 전문가가 1990년대 후반의 북녘 교회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1998년 이후를 '비공식 종교활동 박해 강화기'라고 부르고 있고, '북한의 종교지형 변화' 저자인 송원근 박사는 같은 때를 '경제난 종교 확장기'라고 부르고 있다.

필자는 1998년 이후를 '지하교회 활성화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모두 '북한교회사'가 출간된 이후의 일들이다.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다. 북한 전체를 보는 눈이 그렇지만, 분북사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

그 안경의 이름은 하나는 '진보표 안경', 하나는 '보수표 안경'이다. 이 책은 성능 좋은 어느 한 안경을 끼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참고로 이 책의 'Ⅳ. 해방 이후 북한교회의 역사' 부문의 목차를 보면 ①교회의 재건과 부흥 ②기독교의 정치화와 내적 갈등의 심화 ③기독교의 분단과 위축 ④반종교운동과 기독교의 위기 ⑤반종교운동의 부분적 이완과 사회주의화된 기독교의 점진적 활성화 ⑥신종교정책의 등장과 사회주의형 기독교의 발전이다.

무슨 표 안경을 끼고 기술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이런 문제가 있기는 해도 연구의 정밀성 등 여러 면에서 이 책의 기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계속〉 전방개척선교 2019년 1,2월호

유관지 목사(북한교회연구원 원장, 성화감리교회 원로목사)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

페이스북,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계정 차단했다가 복구한 뒤 '사과'

"혐오발언이라 판단했으나 우리의 실수"

페이스북이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의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이렇게 한 건 그래함 목사가 지난 2016년 게재한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법 및 브루스 스프링스틴에 관한 글 때문이다. 그래함 목사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렸다.

당시 그래함 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에 관한 논쟁이 뜨거울 때, 록 스타인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이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콘서트를 취소한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래함 목사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오랫동안 동성애자들을 위해 활동해 온 인물이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를 취소하면서 '남자들이 여자화장실이나 라커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이 법안은 후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팻 맥코이 주지사, 단 포레스트 부지사같은 인물이 있음에 감사한다. 이들은 우리 여성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법안은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신앙을 가진 수 백만 명의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

그래함 목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으로부터 받은 사과문을 올렸다. "당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삭제했다. (하지만) 우리의 실수로 보인다. 사과하길 원한다. 우리는 삭제했던 내용을 다시 복구시켰고, 이 잘못된 조치로 차단된 계정도 복구했다"는 내용이었다. 페이스북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쓴 글이 혐오발언 정책을 위반하여 삭제하고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24시간 동안 차단시켰다. (그러나) 이를 다시 검토한 결과, 혐오발언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다시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그래함 목사는 "페이스북의 사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4월 9일 올린 나의 글이 그들의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었다"고 전했다.

그는 폭스뉴스의 '폭스와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페이스북이 결정을 번복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 성적 정체성에 관해 그들과 입장이 다른 경우, 그 발언은 혐오 발언이 되고 인종차별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뉴욕시, 1일부터 출생증명서에 '제3의 성(X)' 표기 허용

시장 "트랜스젠더 등 존경 받으며 살 수 있게 할 것"

미국 뉴욕시가 남성 또는 여성으로 식별하지 않는 '제3의 성'을 출생증명서에 표기하기로 결정한 법안이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발효(發效)됐다.

2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안에 따라 뉴요커들은 전통적인 남성(M) 또는 여성(F) 대신 제3의 성인 'X'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법안은 지난 9월 뉴욕 시의회와 보건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또는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의사의 특별한 언급이나 소견서 없이 출생신고서의 생물학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뉴욕시 빌 드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을 가진 뉴욕 시민들이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 캘리포니아, 워싱턴 및 오리건 주에서는 이미 출생증명서에서 'X'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워싱턴 D.C.에서는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독일 역시 지난 1일부터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남성 또는 여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별 범주를 비워두어야 했다. 지난 2017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제3의 성'(gender category) 옵션을 도입하거나 성별 작성을 없애라고 판결했다. 이후 연방 하원이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애플, 기독교 단체가 만든 '탈동성애' 앱 삭제

동성애 옹호단체의 청원에 따른 조치

애플이 동성결혼을 '질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독교 단체가 만든 앱을 삭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텍사스에 위치한 기독교 사역단체 '리빙호프 미니트스리'(Living Hope Ministries)가 개발한 '탈동성애' 앱을 삭제했다. 이는 동성애 옹호단체인 '트루스윈즈아웃'(Truth Wins Out)이 청원사이트 Change.org에 '탈동성애앱은 위험하고, 편협하며 적대적'이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린 데 따른 조치다. 이 단체는 "탈동성애앱은 동성애를 '중독', '질병', '죄' 등으로 잘못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빙호프의 리키 샬렛(Ricky Chalette) 사무총장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개인의 잘못된 고발로 우리의 앱을 삭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그들의 결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앱을 찾는 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개발하고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근 30년 동안 많은 개인들이 신앙과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는 감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여러 단체들을 지원을 통해 그들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고민과 열정, 승리의 경험 등을 정죄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진솔하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음날)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C)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유아,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최성칠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국가인권위, '페미니즘 강연' 징계한 한동대에 "처분 취소" 권고

"표현 · 집회의 자유 침해"… 학교 측 "해당 강연, 건학 이념 위배"



한동대현동홀(본관)전경. ⓒ한동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내에서 있었던 소위 '페미니즘 강연'과 관련, 한동대학교에 △해당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와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할 것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허용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7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에선 '흡혈사회에서 환대로-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당시 성(性)의 상품화와 이른바 '폴리아모리'(비독점 다자연애) 등을 긍정하는 강연 내용이 알려지면서 학교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한동대는 학칙 및 건학 이념을 위반했다며 관련 재학생 1명을 무기정학 징계하고, 4명에게 특별지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대학 학생자체단체가 학교 측의 이 같은 처분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려고 하거나 강사들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피해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동대 측은 "건학 이념에 비춰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대상자들은 (교칙인) '학생단체 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강연회 개최 불허 통보는 집회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

김신의 기자

안양대 사태에 전 · 현직 기독 대학 총장들도 성명 발표

"이사 승인은 종교간 분쟁 야기시키는 사안"



안양대학교 내에 내걸린 매각 반대 현수막.

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회장 임승안 총장)와 소속대학 총장 일동,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회장 정상운 박사)과 소속회원 전·현직 총장 일동 등이 안양대학교 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945년 우리나라의 해방과 이후 정부 수립의 격동기에 눈물의 선지자 고봉 김치선 박사에 의해 1948년 8월 한국교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설립된 70년 기독교 사학 안양대학교(전신 장로교신학원, 대한신학교)를, 포교 방식뿐 아니라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대순진리 혹은 불교에서 파생된 타종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순진리회 성주방면(이하 대진성주회) 산하 대진교육재단에 매각 또는 재단 합병하려는 것에 대해, 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와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에 소속된 모든 전·현직 총장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매각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기독교 사학의 타종교로의 매각 혹은 합병은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유은혜 장관)는 대진성주회 관계자들과 산하 교육재단 관계자들인 문OO, 허OO, 김OO, 이OO에 대한 이사 승인은 종교간 분쟁을 야기시키는 심각한 사안임을 감안해 달라"며 "대진성주회도 기독교에 도전하는, 기독교 사학을 불법 매입하려는 혹은 재단을 불법 합병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진성주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이미 승인된 문OO, 허OO과 교과부 승인 요청 중인 김OO, 이OO에 대한 이사 승인을 취소와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한국교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을 타 종교인 대진성주회에 불법 매각하는 행위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종교간 분쟁이 야기될 것을 경고하며, 한국교회 전체와 신학대학들과 기독교 대학들이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천명했다.

이에 우일학원과 대진성주회, 그리고 교육부와 국회에 아래 사항을 촉구했다.

1. 우일학원 이사장 김광태 장로는 신앙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타 종교로 불법 매각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대진성주회는 기독교 사학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는 기독교에 대한 도전을 즉시 멈추고, 우일학원 등재 이사들과 등재 승인 이사들을 철회하라.

3. 교과부는 설립목적에 반하는 타 종교에 은밀히 매각하고 매입하려는 우일학원 이사장 김광태 장로와 대진 성주회 이사들의 승인을 취소하고 불법 매각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라.

4. 국회는 뒷돈 거래 사학 매매 근절을 위한 사학법을 즉각 개정하라!

영광의 비상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롬 13:12b)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동터오는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군들 지난날의 후회와 아쉬움을 떨쳐 버리고 새 출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어떻게 잘 맞는 옷처럼 우리에게 입혀지느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에 식상한 분들은 이러한 결심이 진부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진 결심들이 열매나 보람으로 찾아오기보다는 낭패와 실망으로 찾아오는 경험을 한 분이라면, 왜 나는 새해를 시작하는 순간 새 출발하려는 모습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의욕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결심의 옷을 입는 옷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로 부끄러움을 가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람과 작은 부닥침에도 쉽게 풀어지고 찢어지는 잎사귀처럼, 지난날의 우리의 결심도 작은 충격에 쉬 무너졌던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결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소중한 깨달음에 주신 결심들을 잎사귀처럼 깨어지기 쉬운 옷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의 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옷은 갑옷입니다. 칼과 창으로 충격이 와도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한두번의 공격을 넉넉히 막아내고 계속 우리의 결심들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갑옷은 복음의 옷입니다. 내 힘과 내 지략으로 지어낸 옷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만든 종이짝 같은 옷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은혜로 직조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작된 옷이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갑옷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을 빛의 갑옷에 수놓아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상은 이 옷을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라 했습니다. 오늘 이 옛말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만이 우리를 비상하게 하는 날개가 되리라 믿습니다. Bound for Glory, 영광의 비상!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제법 오래 전 어느 스포츠 잡지에 이런 광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린 위의 공을 치기 위해 무서운 집중력으로 홀을 바라보는 타이거 우즈의 모습이 있고, 그 상단에 "이상적인 때를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카피가 적혀있는 광고였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광고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옷을 입고 그린 위의 빗물을 쓸어 내리는 남자를 보면 그 광고 메시지의 핵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장대 같이 퍼붓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모든 여건이 좋아질 때 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야 일인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어진 여건이 좋을 때만 달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이즈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성 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금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은 지난 해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해서 날이 개이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빗 속을 뚫고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한 해의 목표와 과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흐트러지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여정도 함께 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비록 모두가 다 힘들고 연약하지만, 서로 손을 잡으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집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면 게임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승리가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샬롬!

신년 말씀뽑기 행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매년 송구영신 예배 혹은 신년예배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올 해 내게 주신 말씀 뽑기'라는 행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 행사는 제단 위에 여러 성경구절이 적힌 카드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아예 목회자가 말씀이 적힌 카드들이 든 통(주머니)을 들고 있으면 교인들이 한 사람 씩 나와서 말씀을 뽑기도 합니다. 일부 교회에선 말씀을 뽑으러 나오기 전에 준비한 감사 헌금을 제단에 바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전엔 교회마다 이 행사에 쓰일 말씀들을 직접 써서 준비했지만, 요즘엔 아예 기독교 서점에서 '신년(송구영신) 말씀 카드'라는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년(송구영신) 말씀 카드'라는 상품까지 출시 된 것을 보면 신년 맞이 '말씀 뽑기'행사가 한국 교회 안에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행해지는 말씀 뽑기에 대해 비판한 글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희환 목사가 신년 말씀 뽑기에 대하여 소개한 글을 보면 "말씀 뽑기 행사를 보고 있자면 새해마다 복채를 가지고 한 해의 운세를 점쳐달라고 점쟁이를 찾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무속신앙에서 연초마다 신년운세를 점쳐보던 풍습이 '신년 말씀 뽑기' 행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승구 교수(합신대 조직신학)는 지난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신년 말씀 뽑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는 "말씀 뽑기 행위는 한 가지를 빼고서는 모든 면에서 반기독교적"이라며 "뽑혀진 한 말씀만이라도 잘 외우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긴다면 좋은 일일 것이나 대부분 그런 의도 보다는 이 말씀이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예언적 메시지가 될 것인가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약의 제비뽑기와 연결해서 말씀 뽑기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제비뽑기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 이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신학자들의 생각은 말씀 뽑기가 성경의 문맥을 단절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항상 그 문맥 속에서 읽어야 바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한 구절만을 뽑아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성경의 문맥을 끊게 되며 정확한 뜻을 알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뽑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비뽑기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제비뽑기를 하지 않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묵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기본이 되기에 자신의 삶과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Youth Minister
Beautiful Church

- Categories : Youth Pastor
- Denominations : Baptist-SBC
- Job Type : Full-Time

Job Description

The Youth Pastor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leadership, oversight and implementation of the youth ministry at Beautiful Church, which includes teens from thirteen years old to the age of eighteen. The Youth Pastor will work with the Director of Education Ministries m (DEM) for the goal of overseeing all ministries and events designed with the purpose of reaching and discipling teenagers in 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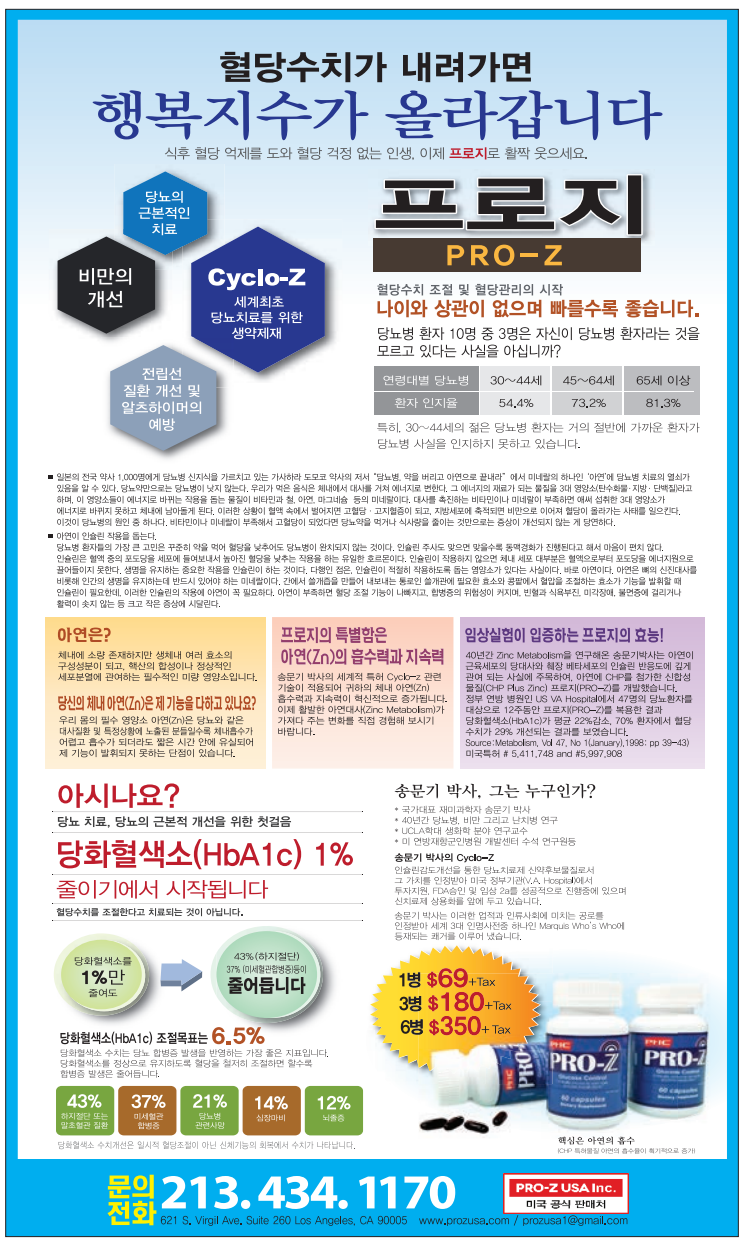
Application Procedures

Interested and qualified individuals should send a cover letter, resume, sample message (MP3 or MP4), Personal Testimony, Calling to Ministry, 2 References Letter (One from Former Ministry) along with salary expectations electronically to beautifulchurch@hotmail.com. Candidates who appear to be a good match for both Beautiful Church and this position from a preliminary review of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will be contacted for interviews and further candidating steps.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기독일보 목회자 청빙 참고
www.kr.christianitydaily.com

Beautiful Church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 626-810-345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CD봉투+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Stand X-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프로지 PRO-Z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의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PRO-Z Glucose Control 60 capsules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TOPMEDIA
SIGN & PRINTING
www.TopmediaUSA.com
323.265.0244
TRUCK & VAN WRAPS
BANNER & SIGN
PRINTING & COPY
TRADE SHOW ITEMS
Promotion Items
Stickers & Label
Package Design
T-shirt Print
Printing & Copy
Sign & Bannner
Trade Show Items
Van Warp
Truck Warp
Food Truck Warp

“북핵보다 더 무서운 주체사상, 반드시 근절해야”

주체사상, 핵을 동원해서까지 지키려는 것
SFC 2명의 간사는 끝내 아름다운마을로...



안병만 목사는 같은 고신 출신으로 북한에 납치돼 순교한 故 김동식 목사와 “호형호제”하던 사이였다고 한다. 안 목사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을 떠올리며 한국교회가 북한의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탈북자들을 돕다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故 김동식 목사. 북한 당국은 그에게 온갖 위협과 회유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전향할 것을 강요했지만, 이를 끝까지 거부한 김 목사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이듬해 평양 감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회를 중심으로 북한을 규탄하고 고인의 유해를 돌려줄 것을 호소하는 운동이 펼쳐졌지만, 북한은 침묵했고, 우리조차 그를 점점 잊어갔다. 그러던 12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끝내 숨을 거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에 약 5억113만 달러(우리 돈 약 5,643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북한이 웜비어에게 전기충격을 가하고 펜치로 치아를 손상시킨 흔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웜비어의 유족이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참고했던 것이 바로 김동식 목사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목사의 유족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지난 2015년, 법원은 북한이 약 3억3천만 달러(우리 돈 약 3,699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메인 이가 있다. 바로 김 목사의 친구인 안병만 목사(열방교회)다. 같은 고신 출신으로 고인과는 생전 호형호제(呼兄呼弟) 하던 사이였다고 한다. 안 목사는 “미국은 이들의 죽음에 이토록 단호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잡혀가 죽었거나,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우리는 무얼 했느냐 말입니다.” 라며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삼켰다.

그래도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북한의 인권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서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동식 목사가 납북되자 그를 구명해 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분입니다. 국회도 가보았지만 누구하나 나서주는 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생사조차 불분명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미디어들은 온통 평화를 노래하지만 이들에 대해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도 수용소에 많이 잡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자꾸 말해서 잠든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주체사상이 무너지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있어 주체사상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북한의 핵보다 주체사상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핵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주체사상 때문이니까요. 핵을 동원해서까지 그걸 지키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사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해도 주체사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족통일과 평화를 노래하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관광이 중단되기 1년쯤 전인 2007년에 금강산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안내를 하던 보위부의 한 사람이 옷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기에 ‘김일성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왜 김정일 배지를 달지 않느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살아 있는 의의 태양’이라고 하더군요.

그 때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어떤 의미라는 걸, 김일성은 죽었지만 그들 가슴 속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김일성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겁니다.”

마치 종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물과 기름처럼 기독교와는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이미 북한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니,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들이 침투해 들어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김일성을 앉히고 그를 찬양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이런 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반드시 색출해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안 목사는 지난 2016년 5월, 그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기독교 매체 ‘코람데오닷컴’에서 “‘청춘’이라는 북한 노동당 청년 적위대들이 부르는 노래를 기독 청년들이 부르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혼란 속에 빠졌다”며 “남한 땅에도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기독교적인 공동체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茫然自失)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사회의 부조리와 군사독재 정권에 앞서서 기독교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부분적 공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북한 주체사상의 해묵은 이념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반기독교적인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데, 낡아빠진 이념의 찌꺼기를 모아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세뇌시켜 김일성 정권이 꿈꾸던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 사상은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우리는 그 정체를 밝혀 과감하게 배격해야 한다”고 했다.

주체사상에 대해 아주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4년 전 터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터키는 정교회가 약 70퍼센트를 차지했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오고 난 뒤 불과 70년, 그러니까 두 세대 만에 이슬람이 약 90퍼센트인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100년도 안 걸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체사상의 확산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더 무서울지 모릅니다. 비틀거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사상과 이념이 급속도로 퍼진다면, 그들은 모두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스며든 주체사상을 어떻게든 밝혀내어 근절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장 고신이 만든 학생선교단체 SFC도 이념 문제로 총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지난 2015년 제65회 총회에서 SFC 지도위원장이 되어 이듬해 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당시 6개 노회가 진상 파악을 헌의했을 정도로 나름 심각했습니다. 그 때 조사를 하면서 SFC 내에 매우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이념이 상당히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아름다운마을공동체’(설립자 최철호)라는 곳과 깊이 연결되어 있더군요.

결국 문제가 된 3명의 간사 중에서 2명이 사임하고 1명은 고신대 신대원으로 가는 선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사임한 2명은 끝내 SFC를 떠나 아름다운마을공동체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참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가졌을텐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사상에 깊이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관건은 더 이상 이런 것에 우리 아이들이 빠지도록 놔두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비단 SFC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는 잘못된 사상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정확한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으로 다음세대를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지 않은 탓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모든 길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주체사상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교회와 복음이 사라진 동토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 땅에 샬롬을 이루고 참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합니다.”

안병만 목사는 고신대학교와 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룸 대학교에서 신학석사(Th.M)와 박사(Th.D-설교학) 학위를 받았다. 영국 위클리프 대학에서 선교학을 공부했다. 학생신앙운동(SFC) 총무간사, 부산수정교회 담임목사, 고려신학대학원 및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강사를 역임했고, 현재 통일교육문화원 이사, 쉐마교육연구원 본부장, 코람데오닷컴 운영위원장, 쉐마초등학교 이사장, 열방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이대웅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겨울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에서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등록마감일 년 월 일
등록상담전화

겨울학기일정

년 월 일 토 년 월 일 토
매주 토요일 과목 학점이 개설됩니다

교시 오전 시 오전 시
교시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
점심식사 오후 시 분 오후 시 분
채플 오후 시 분 오후 시 분
교시 오후 시 분 오후 시 분
교시 오후 시 분 오후 시 분

모집과정

학사: 신학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석사: 교역학석사, 신학석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박사: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DOCTOR OF THEOLOGY 신학박사, DOCTOR OF MISSIONARY 선교학박사, PH.D. CHRISTIAN COUNSELING 기독상담학철학박사, PH.D.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육철학박사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성경 해석 시 저자의 의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

존 월튼 휘튼칼리지 구약학 교수, ‘2019 신년 고대 근동 신학 포럼’ 강연



성경, 마치 다른 사람에게 쓴 편지 읽는 것 같지만
그 편지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성경 저자들이 ‘어떤 문화적 강’ 가졌나 연구해야
고대 근동 문헌, 이스라엘인들 문화 이해하는 자료

존 월튼 교수는 “이스라엘 문화가 고대 근동 문화의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니다. 제가 고대 근동 문화를 성경에 뒤집어씌우려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성경 말씀은 이미 우리 세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 신년 고대 근동 신학 포럼’이 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강의는 〈고대 근동 사상과 구약성경(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고대 근동 문화와 성경의 권위(The Lost World of Scripture, 이상 CLC)〉 등을 쓴 존 월튼 교수(美 휘튼대학교 구약학)를 초청해 진행됐다.

‘고대 근동 문헌과 구약 해석(Significance and Use of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for Interpreting the Old Testament)’을 제목으로 강연한 존 월튼 교수는 “성경이 쓰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언어를 통해 전달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당대 문화에 묶여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다른 사람에게 쓴 편지를 읽는 것 같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고대 근동 세계라는 강에 몸을 푹 담궈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월튼 교수는 “우리가 고대인들에게 가야 한다.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올 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비교문화적 연구를 위해 그들의 문화에 접근해 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에 성경 읽기는, 사실 비교문화적 연구의 최고봉에 서서 메시지를 얻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문화의 강(the River of Culture)’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문화의 강’을 이해하기 위해 현대의 ‘문화의 강’을 살펴보겠다”며 “‘현대 문화, 개인주의, 후기 시민주의 사회, SNS, 우주의 확장’ 등은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의 일부로, 고대인들은 전혀 모른다. 이처럼 ‘문화의 강’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관계 있다”고 했다.

월튼 교수는 “문제는 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바벨론과 가나안 사람 누구도 현재 우리의 삶을 전혀 몰랐고, 자신들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했다”며 “출애굽기에서 현대 경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열왕기서에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주 확장 과정에 대한 지식을 창세기에서 얻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성경 저자들은 당대의 ‘문화의 강’을 통해 메시지를 전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시 성경 저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주제들을 물론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현대의 모든 서로 다른 ‘문화적 강’에 모두 맞춘 말씀을 하셨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존 월튼 교수는 “하나님 말씀을 책임 있게 해석하려면, 저자들이 ‘어떤 문화적 강’을 가졌는지 연구해야 한다”며 “그 방법을 통해서만 성경의 진정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도로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들과 우리는 ‘문화의 강’이 서로 다르기에,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월튼 교수는 “일례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대에서 우상숭배가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지 않는가”라며 “당시 우상은 단순한 미술품이 아니었을 수 있다. 우상은 제의의 일부이고, 신의 임재 과정을 상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기다리면서 왜 ‘특별한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라며 “이는 우리가 직관적이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현대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문화의 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월튼 교수는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과연 기록된 대로 읽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는 것은, 우리의 ‘문화의 강’을 통한 해석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성경 본문에 투영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곧 성경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월튼 교수는 “직관적이고 문자적인 성경 읽기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가 정말 말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며 “이는 성경의 권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길을 우리가 중간에 막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책임 있게 해석하려면,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를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성경을 가장 문자적으로 읽는 방법은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고대의 성경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의 입장과 상황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봐야 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 고대 근동 문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고대 근동 문헌들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계에 뿌리를 박고 살았기 때문”이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에, 주변 나라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보다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월튼 교수는 “이스라엘 민족은 문화적으로 고립돼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문화를 초월해 성경을 기록했다”며 “우리는 단순히 언어의 번역자가 아니라, 문화와 문화,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월튼 교수는 “고대 근동 문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현대 문화를 벗어나 성경 본문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문화와 문화 사이를 연결하는 창문이나 열쇠 구멍과 같은 역할”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고대 근동 문헌들을 이해해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방한해 강연을 진행했던 존 월튼 교수는 〈고대 근동 사상과 구약성경〉에서는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정리해 당시의 종교관과 우주관, 인간관을 살폈고, 〈고대 근동 문화와 성경의 권위〉에서는 21개 명제를 통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문화는 기록이 아닌 ‘구전(口傳)’ 중심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따른 신구약의 장르별 특성을 짚고 있다.

이 외에도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The Lost World of Adam and Eve, 이상 새물결플러스)〉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그리심)〉 등을 통해 고대 근동이라는 ‘잃어버린 세계’를 탐구해 왔다.

이대웅 기자



지난 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2019 신년 고대 근동 신학 포럼’이 개최됐다.

2019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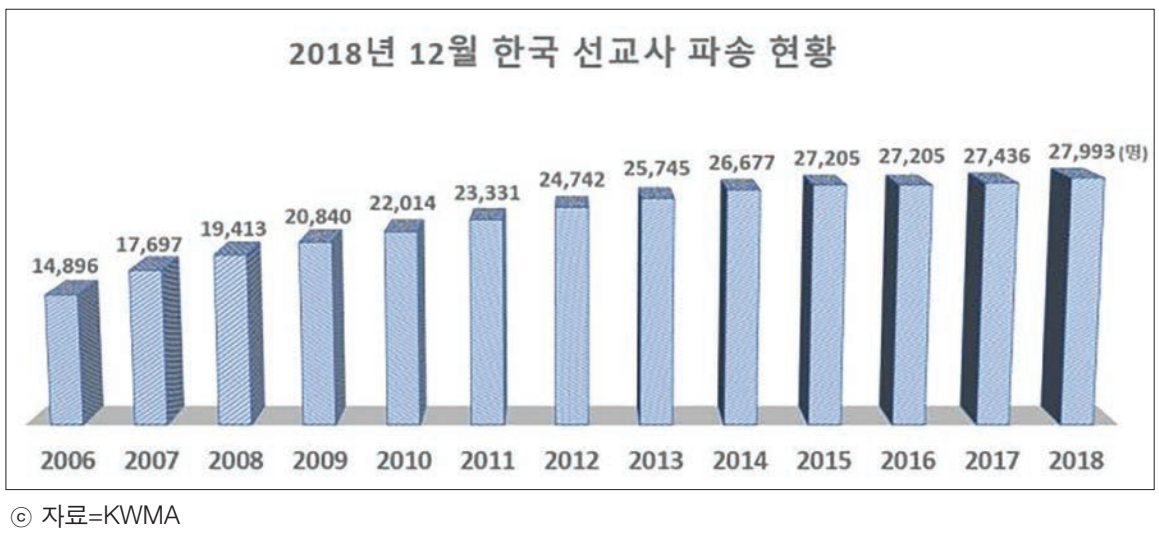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한국 선교사 파송 증가세, 3만 명 선교사 시대 앞둬

지난해 171개국 2만7,993명 파송… 전해보다 557명 ↑

2016년 최저 파송수 이후 완만하게 증가
비자 장벽 높아져 선교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최대 파송국은 동북아X국, 집중 사역 분야는 교회개척
20, 30대 잠재적 선교 리더 발굴해야



ⓒ 자료=KWMA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증가수가 2016년 최저(0명)를 찍은 뒤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7일 발표한 '2018년 12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에서는 2017년 증가수(231명)보다 두 배 가까운 557명이 증가해 총 2만 7,993명의 선교사가 171개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38개 교단선교부와 184개 선교단체가 참여했다.

올해 통계는 지난 수년간 한국교회 내에서 이뤄진 선교사 '허수 빼기' 및 '자기 정화'의 작업으로 선교사 증가율은 둔화하였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성숙한 선교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지표와 같았다. 2006년 타겟 2030(Target 2030, 2030년까지 10만 선교 정병 파송) 비전을 선포한 지 10년 만인 2016년 파송 증가율이 0포인트를 기록하자, 위기감을 느낀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선교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더욱 높이면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 자릿수 마이너스를 보인 한 교단 선교부에서는 기독교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협력선교사, 동역선교사로 계수하던 것을 전부 제외하고, 순수하게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만 계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교단 선교부가 파송한 선교사는 2012년부터 7년간 평균 277명 정도 증가했고,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는 감소하는 경우 없이 각각 꾸준히 2자리 수의 선교사 증가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KWMA는 "2019년은 타겟 2030의 3차 5개년의 '선교 전력투구기'(2016~2020년)"라며 "이제는 선교사수가 증가는 하되 '어떤 선교사를,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보낼 것인가라는 질적 요소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2018년 말 교단 선교부의 파송 선교사는 1만2,686명,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는 1만6,428명(이중소속 2,242명)이었다. 조사 대상 선교단체 190여 개 중 10명 이상 파송한 단체는 130여 개로, 유의미한 단체로 제한하면 교단 선교사 수가 선교단체보다 많은 것으로 봤다.

KWMA는 "한국교회가 어려워질수록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 증가보다는 교단 선교사 증가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비자 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선교 환경과 맞물려, 목회자 배경 선교사들의 증가 현상은 미래 한국선교가 무엇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의 10대 파송국은 동북아X국(3,549명), 미국(2,590명), 일본(1,547명), 필리핀(1,542명), 태국(956명), 동남아I국(847명), 서남아I국(839명), 캄보디아(829명), 러시아/연해주(604명), 동남아V국(564명) 순으로 집계됐다.

2016년, 2017년 모두 3, 4위를 차지한 필리핀과 일본이 2018년에는 순위가 바뀌었으며, 2017년 6, 7위를 차지한 서남아I국과 동남아I국의 순위도 바뀌었다. 2016년, 2017년 각각 10위를 차지한 이슬람권인 T국은 선교사 수가 줄면서, 동남아V국이 대신 10위권에 자리매김했다.

500명 이상의 선교사가 활동하는 국가는 13개국이었고, 이들 국가의 선교사 수는 전체 파송 선교사의 50%를 조금 넘었다.

한국 선교사의 주 활동 권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돌파가 일어나지 않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거대 종교권이 몰린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한국 본부 등에서 총 선교사의 약 61%인 1만7,751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한국 선교사들이 집중하는 사역은 교회개척(153개국, 1만4,624명), 제자훈련(141개국, 9,663명), 복지/개발(82개국, 2,017명), 캠퍼스(63개국, 1,954명), 일반교육(79개국, 1,671명) 순이었고, 선교사 자녀는 1만8,37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KWMA는 응답자 중 선교사 연령대 통계도 새롭게 발표했다. 20대는 448명, 30대는 1,666명, 40대는 5,541명, 50대는 5,332명, 60대 이상은 2,709명이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40대가 많은 것은 아직은 한국선교가 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40대 이하인 30대와 20대의 수치는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며 "20, 30대 잠재적 리더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KWMA는 말했다. 은퇴 선교사 수치도 '60대 이상'이라고 답한 선교사 수를 전체 선교사로 확대 유추할 경우 4,748명 정도가 은퇴를 앞둔 선교사로 유추했다.

KWMA는 2012년 샘플링 조사 결과, 한국에서 발표되는 수보다 선교 현장에 적어도 1만 명 정도 선교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선교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실제 수를 조사해야 집중해야 할 지역과 파송하지 않아도 될 지역을 구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가는 한국선교에서 통계가 갖는 함의는 큰 그림과 방향성 대한 통찰력과 해석"이라며 "2016년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천천히 3만 명 대를 향해서 가는 한국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기초통계를 통해 읽어내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선교사 10명 중 7명 "재정적 이유로 사역 중단 고려치 않아"

kriM 설문조사 … 절반 이상 선교비로 월 미화 2~4천 달러 후원받아

한국선교연구원(kriM, 원장 문상철)이 한국 선교사의 재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선교사의 54.2%는 월 선교비로 미화 2~4천 달러를 후원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선교사의 37.9%는 지난 3년간 선교비가 감소했고, 34.9%는 증가했으며, 27.2%는 변동이 없다고 대답했다.

매년 한국선교 현황과 추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온 kriM은 최근 유효하게 응답한 273명의 선교사의 통계 결과로 최근 이같이 발표했다. 응답한 선교사의 43.2%는 월 2천 달러 미만을 후원받았고, 4천 달러 이상은 응답자의 2.6%인 7명에 불과했다.

응답한 선교사의 79.4%는 '향후 사역을 원활하게 하려면 선교비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대답했고, 14.0%는 '지난 3년간 선교비가 20% 이상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해왔다'고 대답했다.

또한 71.3%는 '재정을 이유로 사역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대답해, 한국교회의 선교 후원이 위축되는 경향에도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사역을 이어나가는 선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0개 단체 대표 혹은 행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단체의 재정 현황도 물었다. 결과 29.7%만이 지난 5년간 전체 지출이 증가했으며, 나머지 43.5%는 지출 감소, 27.0%는 변동이 없다고 대답했다. 한 선교 전문가는 "교회를 상대로 후원받는 선교단체들이 재정적으로 더 많이 타격을 입으면서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교단 선교부와 교단 선교사는 후원교회와 보다 가족적,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안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지만, 목표지향적인 선교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후원구조가 취약해 교회 후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후원, 노후 연금 등을 이유로 교단 선교사로 재허입 받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절반 이상의 선교사가 미화 2~4천 달러를 받는 것은 적절한 수준일까. 선교 전문가는 "교회, 센터 건립 등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0~15년 차 선교사의 생활비, 활동비 등은 2~2.5천 달러 정도로 보면 된다"며 "나라,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거비가 비싼 수도가 아닌 중소도시는 월 2천 달러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선교지 수준에 맞춰 생활하고 사역하려면 어렵지 않은 금액이나, 한국사회 수준에 익숙한 젊은 세대나 통신의 발달로 한국 소식을 자주 접하는 선교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선교비 확보를 위한 돌파구로 그는 현지 교회 지도자 및 장로들을 동원하여 선교사들이 재정을 후원받거나 현지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선교(BAM) 모델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kriM은 2018년 12월 말 현재 한국 선교사수가 2만 1,37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158명 증가한 수로, 작년 설문 시작 이후 39년만에 최저치 연증가율(0.69%, 145명 증가)보다 미세하게 높아진 연 증가율 0.74%를 기록했다. 선교 대상국수는 146개국, 선교단체수는 154개였다. 이중 69개 선교단체는 회원 선교사수가 증가했고, 26개 단체는 감소, 59개 단체는 현상을 유지했다. 또 선교단체의 절반 이상인 56.9%는 회원 선교사가 50명 이내의 소규모였고, 70.8%는 회원 선교사가 100만 명 미만이었다. KRIM은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진행한 나일선 박사(Marlin L. Nelson)의 한국선교현황 연구 의뢰를 받아 현재까지 한국선교현황을 조사, 발표하고 최신 선교 이슈와 동향을 발표해 왔다.



100년전 삼일독립을 2019년 복음통일로

미주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전문세미나/연합기도회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자!"

고국의 복음통일을 위하여 선교역사, 정치, 경제, 교육, 문화와 영화, 동족선교 사역 등의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주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미주 디아스포라들의 연합기도로 함께 합니다.

- **대상** : 미주 각지역의 성도 및 통일을 기도하는 단체와 기도자들
- **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후 2시 ~ 15일(금)
- **장소** :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 **문의** : T.(425)775-7477, 기독일보 T.(213)739-0403, 사랑의빛선교교회 T.(626)744-9191

공동대표


정성진 목사


고명진 목사


신창민 박사

저녁집회 메시지


임현수 목사


이정훈 교수


이승종 목사

영역별 강의 | **주관교회** | **총무간사**


이학준 교수 플러신학교


이상명 교수 미주장신총장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대표


윤학렬 영화감독 '철가방 우수씨'외 다수


강석진 선교사 극동방송대북설교


윤대혁 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

■ 영역별 주제와 강사들 2월 12일(화) : 오후 2시~5시, 13일(수)~15일(금):오전 9:30~11:30 / 오후 1:30~4:30

역사 – "하나님의 선교, 복음, 한국통일"
이학준 교수(플러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Ph.D)

현재 이슈와 국제 정치법 – "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근대화"
이정훈 교수(울산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제 – "통일경제방안, 실사구시의 길이 있다"
신창민 교수(서울대 법과대학, 클레아몬트 경제학박사)

세계선교 – "남북통일이 세계선교에 미치는 영향"
송 원 선교사 (Cross선교회 상임연구원)

문화와 영상 – "영상의 영적분별력과 영상문화의 영향력", "통일영화제작이 필요합니다"
윤학렬 영화감독 (서울예대, 삼일독립100주년 남북공동시사 '19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 제작중, LA 아리랑/오박사네 사람들, 철가방우수씨, 지렁이 등)

통일신학교육 –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의 북한 복음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
이상명 교수 (미주장신대 총장)

탈북사역 – "동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유와 복음이었습니다"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대표)

북한지하교회 – "북한지하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신앙"
강석진 선교사 (극동방송 대북설교방송요원)

디아스포라 – "차세대 양육과 통일선교"
이승종 목사 (한인세계 선교협의회 사무총장)

통일의 전략 – "서울과 한국과 평양과 땅 끝까지"
김요한 목사 (GMS 총회세계선교회 파송선교사,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대표)

■ 저녁집회 메시지와 강사들 2월 12일 화요일 저녁부터 매일 오후 7시~9시

첫째날(12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임현수 목사
둘째날(13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자"	임현수 목사
셋째날(14일)	"청교도윤리로 세운 위대한 미국"	이정훈 교수
넷째날(15일)	"복음적 통일, 제단불 회복"	이승종 목사

주최 :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Global Expert Network for Reunification Korea)
주관 : 사랑의 빛 선교교회 협찬 : T.M.T.C, (사)합류통일동포연합, 기독일보, 기드온동족선교